

아침 9시경이 교도관이 찾아와서 검찰로사에
나가는 하는데 가발봉지 물었습시다.

나는 변론인 만나기전에 누구로 만나지 말라 했는에
만나지 않겠단 했더니 검찰로사에 나가는것은 본인
의사에 쓰인다 했습시다.

그러면서 불충분 요건을 실패 했고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물러서 물어봐 교도관이 불러주는대로 쓰라고 해서 썼습시다

내용은 "변론인 정경 지에는 누구로 만나지 말라 해서
충분하지 못하습시다. 검찰 양으로 검찰로사에 사실상
응답하습시다." 인습니다.

나는 검찰로사에 갈 필요 없이 생활하는 재판까지
가지 않습시다.

검찰로사에 사실상 응하더라도 쓰것은 교도관이 검찰에서
계속 찾아가는데 그렇게 써야 한다고 해서 썼습시다.

과장이라는 사람도 나와 검사기 찾는데 가서 만나라면서
기쁘고 후에도 검사기 찾은 것만 알아서 만나라고 했는에
나는 검사를 만날일이 있는지 하면서 물었는데 더이상
물리지 않고 돌아갔습시다.

교도관한테 이렇게 써도 변론인한테 후라기 없는다고 물었는데
괜찮아 해라 그렇게 썼습시다.

양으로 수중에 절대 응하지 않습시다

2014년 3월 28일

홍